

또다른 세월 기다리는 천년 성보

4월25일 아침, 지난밤 늦게 금강산에서 돌아온 탓에 평양 도착 이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던 나는 어렴풋이 산경 우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이 시대에 평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평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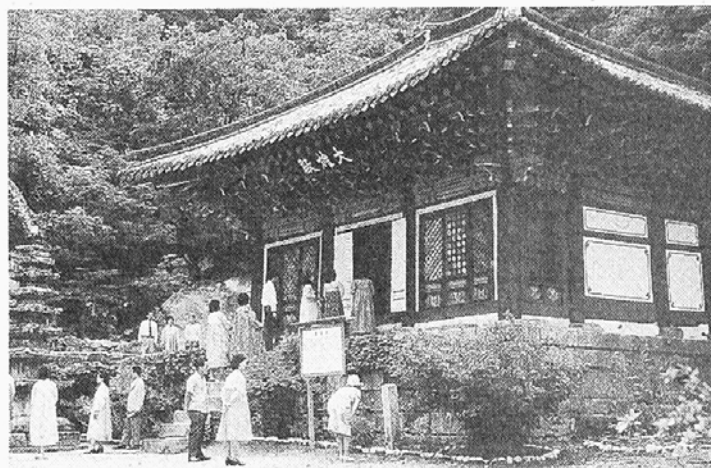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건국기념으로 불교를 내세웠던 고려의 수도 개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평양 서남쪽을 흐르는 대동강의 '충성의 다리'를 건너, 1866년 이 땅의 선조들이 불법으로 개국을 강요하며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온 '사만호'를 격침시킨 양각도의 기념비를 굽어보면서 160여km를 달린 단단의 현진인 판문점이 한 눈에 들어왔다.

사람으로서의 솔직한 확신이 라면 젊은 불자로서의 지나친 교만일까.

거꾸로 보는 판문점

이젠 만나게 해야한다. 판문점이든 평양이든, 누구든 공명심에서가 아닌 진정한 통일보살의 의지를 지닌 사람이라면... 정치인과 군인들의 만남은 서로를 덜 경직되게 할수 있으나 순수한 민간인들의 만남은 정말로 그들의 가슴을 쉽게 열 수 있다.

불교도연맹 인사들을 만났을 때 8·15평화에 관하여 미리 통일원 승인을 합의의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우리 불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한 의지로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



◇ 개성에 있는 관음사 대웅전.

동포원호위원회 안내원에서부터 관광국 담당자들, 풀이한 젊은 모조리 불교에 다양한 방편을 강구하였다. 안개 속에 있던 조선불교도연맹 간부들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7일 아침. 심상선서기장과 류일진 책임지도원이 초벌로 찾아오면서 부터이다. 막상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조선불교도연맹 청사에 안내된 것은 오후 2시. 그들의 승용차를 타고 개성문을 지나 모란봉 공원 기슭에 이르니 문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젊은 형제들이 뜨겁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1층 중앙 현관에 생전의 감일성주상이 평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인삼의 고장 古都 개성 (3)

한때 짙은 고려인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나무와 바위가 많아 송악(松嶽)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도 개성은 이제 어디선가 포연이 물려오는듯 했고, 관목들은 기가 죽어 아직도 숲을 이루질 못한채 몸을 사리고 있었다.

이미 판문점 법회가 어렵게 되고 다른 방식의 남북 접촉이 이루어지는 듯하나 그 실무협의를 하고 돌아온 필자로서는 더없이 조급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좀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북 접촉의 상한선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쉽기 그지없고, 원칙없이 서두르는 불교의 교류방식 역시 불안하기 짝이없다. 남북불교 그 누가 상대를 해도 부족할 것 없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답 안에서 그들을 만난

고려 불심 간직한 관음·안화사등 잘 보존 스님들 머리기르고 예불때만 장삼 입어

력하였고, 그 '불기'에 대해 또 어떤 대책을 진지하게 숙의하였는지 들여보지 않을 수 없다.

거꾸로 보는 판문점은 왜 아직 우리가 고정난 국토를 수리하지 못하는지 그 문제점을 비로소 앞뒤로 완벽하게 둘러보는 것 같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평양에서 개성까지는 20여km의 짧은 거리지만 당도할 서울. 그러나 아직 서울은 너무 멀리 있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과 손끝에서 나부끼

는 유엔기와 태극기를 뒤로하고 느타나무술 우거진 고려박 물관에 들리니 전쟁으로 미아가 된 천년불교 보물들이 모두 그곳에 와 몸을 피하고 있었다. 전쟁에 몸을 소신 공양한 불일사, 현화사, 홍국사 돌탑이 불구가 된 몸으로 남쪽에서 온 불자를 엄격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한때 안화사, 홍국사를 비롯 20여개나 되던 개성지방의 사암은 이제 관음사, 안화사, 대홍사등 서너곳 뿐이다. 박연폭포 옆 관음사만이라도 보고 갈려하니 택시까지 불러주는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 못한다. 꼭지심경 활판들 우리 불교의 보배가 그래도 문화유적은 귀중하게 다루려는 저들의 본능적 불심에 의해 푸른 녹을 옷삼아 입고 또다른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성에서 돌아온 이후는 조선불교도연맹 접촉관계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소위 조직(?)에 성공하기 위해 정산스님과 나는 묘향산 백두산 관광도 포기하고 26일 하루종일 해외



◇ 개성 판문점입구의 도로 표지판, 서울 70km의 글씨가 너무도 두터웠다.

법사를 현지지도하는 모습의 대형 사진을 인상깊게 살펴보고 우리를 위해 축원해주겠다는 법당스님의 안내로 구내 법당에서 서기장과 함께 방문하고 예불을 올렸다. 예불중 정산스님은 감정에 북받치는 등 목이 메이기도 했으나 나는 만가지 생각에 예불중 내내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불 제자들의 상봉

북한의 스님들은 알려진 바와같이 예불시 법의 장삼을 수하기는 하나 절을 하지않고 모든 예를 합장으로 대신했으며, 평상시는 보통의 일상복 정장으로 착상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오히려 필자가 불지하는 중 단과는 유사한 점이 많이 느껴졌고 이들도 이점은 나와 같은 생각인듯 젊은 충일스님 나에 이또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아니고 무엇이랴.

심상선서기장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지만 류일진선사는 첫만남임에도 드물게 미안인데다 나보다도 더 옛되보여 이내 친근감이 더



◇ 안화사 대웅전 법회.

주문신행담

세상의 손발 되어 ⑤ <끝>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어지간히 세상사를 겪어서 알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전화로 받으면서부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것은 내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사바세계가 고통을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 했지만 남남이 다른 얼굴 만큼이나 고통의 종류도 다양하고 팔만사천 번뇌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상담실이 알려지면서 불교방송에서 '괴안을 향하여'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부끄러워서 여러번 사양을 했지만 한참 구룡사가 포교당 불사를 거의 끝내며 막 사회로 눈을 돌리고 포교에 힘쓰고 있었을 시기라 그런 이야기와 전화상담을 하며 느꼈던 어려움들과 극복하고 난 뒤의 굳어진 신심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 이야기를 했다. 방송을 통해 상담실 전화번호가 알

난 것을 어머니처럼 타일러 주었다. 스스로도 괴로운 일이지만 남은 가족이나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어찌할 것인가. 담겨 먼 산과 푸른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부럽다고 자유에 대한 동경의 심정도 편지도 보내오기도 하지만 감상 편지도 가는 편지도 모두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하고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는 써서는 안된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형량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지만 물을 수가 없었다. 다만 반드시 새사람 되어 나와야 된다고 이를 뿐이었다. 교도소 같은 곳을 열심히 찾아와서 재소자를 순화하고 바른 마음자리 알려주어 불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좋은 스님을 만난 덕분에 참으로 마음 편해 져고 불자가 되었노라고 하였다.

우리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항상 실천하는 생

상담통해 사바의 팔만사천 고통 알게 돼 '회향하는 마음으로 여생 보낼것' 원세워

려지면서 상담전화도 늘어났다.

한번은 어느 길간지에 '불자가장 우리는 도반'이란 난이 기사가 나가자 주소가 함께 수록되었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집으로 편지가 줄줄이 오기 시작하자 깜짝 놀랐다.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된것을 알고서야 안심 되었다. 사연마다 절절하고 애절했다. 한결같이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지금은 불법에 귀의하여 참회의 날들을 지낸다는 이야기였다. 나의 근황을 물기도 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불사가 없어 부탁한다고 하면 즉시 책을 사 보내주기도 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사람은 교도소에서 계를 받고 선해라는 불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일요일 스님이 오셔서 법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계를 받고 불자가 되었다고 했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부처님 말씀은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았고 크게 깨달아 새사람 되고자 발심정진하여 요즘은 1백일 기도 중이라고 했다. 내가 편지 답장을 보내거나 말거나 선해는 지금도 편지를 보내고 있다. 책을 잘받아 보았거나 소식 잘 읽었다거나 요즘은 더욱 정진 기도하면서 사회로 다시 나가는 날 반드시 새사람 되어 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나는 한번 먹은 마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



활불교인이 되려고 노력할때 불교의 발전도, 복지사회도, 불국경토의 이상사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세상의 '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 건들을 듣게 되고 부 탁 또한 많이 받게 됐다. 불교인의 참여도가 적다면 일손을 부탁하는 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요구로 뜻있는 봉사자와 함께 요즘에는 무료 노인급식소에 나가고 있어도 한다.

금년 3월에는 불교 텔레비전이 개국되었고 불교라디오 방송과 함께 불교포교를 활성화 하고 있다. 특히 불교텔레비전에 '불교상담실'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우리상담실에서 활영에 참여해 주고 상담도 하며 자료제공도 해주며 또

다른 포교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이사회 어두운 구석 구석에서 수많은 보현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스승은 일꾼들에게 무량공덕을 발원하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을 이제는 한숨 돌리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지게 해준 부처님! 회향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도 보살도를 행하며 살게 되기를 서원해 본다. 같은 도반으로 살아가며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사와 나를 도와 함께 일하는 여러 도반들에게도 감사 를 드린다.

동 여래성(구룡사 진리의 전화 회장)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초교리 입문서 천수경강의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석우스님 지음

교리강좌 10년 강의의 총결산 완전한 기초교리입문서 완성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혼동할 필요없습니다. 불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 책 속에서 찾으십시오. 불교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진작에 누군가 써야 할 책입니다. 이제 불교를 미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진리이고, 과학입니다. 지성인과 미래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석우스님 지음 / 신국판 / 404쪽 / 값 6,500원

관음 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720-1147-8

九山禪師 上堂法語

九山禪門

九山門徒會 엮음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의 초대 방장이셨던 九山禪師의 상당법어를 엮은 『九山禪門』은 스님께서 총림의 수행대중을 위해 설하신 법어 중의 精髓요, 心地法門으로 한국불교의 우뚝한 봉우리인 九山禪師의 자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한국선의 도도한 흐름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九山禪門』은 수행남자를 비롯해 깨달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귀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624쪽 / 4×6배판, 양장본 / 값 20,000원

불일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법원사 Tel. 736-4003 / Fax. 738-1592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경전

범구경의 세계

이원섭종이 신국판 / 398쪽 / 7,000원

범구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속에는 정밀한 불법의 세계와 불교사상의 전원이 담겨 있다.

불교학자이자 시인의 저자가 어려운 용어나 문구해 대한 설명을 비롯, 각각의 경에 맞는 경전 속의 직결한 비유와 예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가지 경철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 범구경의 진수를 읽으면서 체득할 수 있게 해준다.

도시 출판 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02) 720-9372 · 3 FAX (02) 723-0646